



대형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형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emaum

마음 하나로 천지가 흥하고 망해

육법공양의 올바른 뜻

오늘은 스님께 재에 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지난주 일요일 3BS(불교방송) 입요법회를 들었습니다. 어느 스님이 법문을 하셨는데 재에 관한 의식과 육법공양의 의미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안양의 한마음선원 대형스님은 불자들에게 말하기를 '다른 거 다 쓸데 없다. 떡 하나만 놓고 지내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며 음식을 인해서 모두들 굶고 가야 하니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이게 무슨 얘깁니까? 지금 선원에서 쌀, 초, 물, 떡, 꽃, 과일, 이렇게

대해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에서든 절에서든 재를 지낼 때는 간편하게 지내라고 말합니다. 본래 의식 자체는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문란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진리라는 것은 사대가 따로 없고 사방도 오방도 따로 없습니다. 이를 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문을 찾아서 공부하려고 한다면 공부를 못해요. 왜냐하면 본래가 문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이 특 지냈는데 문이 어디 있으며, 내가 있는데 문은 찾아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공부야 얼마나 중요한 지 모릅니다. 정말이지 이런 공부야 천년에 한번씩 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나 이런 공부를 만났을 때 한 생을



그림 · 최주현

재를 지내는데 왜 떡 하나만 놓고 지내느냐 하고 말씀하셨지만 이 떡은 그냥 먹는 떡이 아니라 우주를 삼키는 떡이요, 그 떡 하나에는 모든 일체 생물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모든 걸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밥상을 놓고 반찬을 차려놓는다면 그 앞에서 살던 습이 도로 성한단 말입니다. 먹고, 입고, 집을 짓고, 릉들이 아끼고 애착하면 습이 다 합쳐져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의식이 감동해서요. 그러나 그 의식을 벗기기 위해서 안 보이는 데서는 설법을 하고 보이는 데는 떡 놓고 상을 차리고 하는 뜻이 다 모든 것이 멀어지고 하는 것이죠. 안과 밖을 다 그렇게 해드리고 자손들도 이 공부를 해야만 또 그 자손들을 통해서 들고 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편 원리나 하면 살아있을 때 부모가 자식집에 어떻게 잘 사나 하고 들르게 되면 맘 편하게 잘 모시다가 가실 때는 여비를 드려서 잘 모셔다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아갔을 때도 어려운 일은 잘 토닥거리서 마음을 풀어주고 밥 먹여서 차비주고 보내는 것과 같죠. 그게 자유 아닙니까. 언제까지 매어 놓을 수 있으며 또 그 뒷 문제는 어찌하 시겠습니까? 그리고 향은 양식을 삼아서 하는 것이고 촛불은 자기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 켜니다. 자기 마음을 밝힘으로써 그 조상들도 밝혀지니까요. 또 향으로 양식 삼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도리를 알고 행해야 체계 없는 그 분이 그걸로 양식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촛불 하나 다 키는 것은 정수를 말합니다. 정수에 입력되는 데 손색이 없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꽃을 한다발 놓는 뜻은 마음이 웃고 살라 하는 뜻에서 그 향기를 접합니다. 영령과 산 사람 자식들과 똑같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지 못해서 어떡하나 가보지 못해서 어떡하나 해도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으면 비록 몸은 가지 못해도 내 마음이 가 있으면 한 할나에 마음의 도리를 읽고 응접하십시오. 이 도리가 얼마나 광대무변한지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과일공양! 꽃공양! 다기 공양! 향공양! 청수공양! 떡공양! 초공양! 모두 공양으로 들어갑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이고 안 보이고를 떠나서 공생이며, 공심이며, 공제며, 또 공용이며 공익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며, 이 땅이 바로 만 우주며, 이 우주 삼계가 다 들어 있는 우주입니다.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모두가 현실의 한 뼘에 들어있다는 뜻을 보이지 않는 데서 실천합니다. 그냥 묵묵히 치고 열매를 맺어주고 싶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스님네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조상님네들을 다 이렇게 리드해 보세요. 그러면 조상님네들도 마음이 흥락해서 좋으니까 가정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 마음 하나가 천지를 건지는 거라면 마음 하나가 천지를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것은 공법(空法)이라야지 그냥 법이라고 한다면 잘못되고

“방편없이도 천도할 수 있어요
바다를 다기 삼고 과일 향기삼고
향을 양식삼아도 다 통합니다”

게 여섯가지 다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따로 제주분들에게 정성스럽게 공양 집수 시게 하죠. 그런데 뭐가 육법공양에 어긋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스님께 여쭙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떡 하나만 놓고 지내는 재가 잘못되었다고요? 천도라는 것은 어느 스님이든지 할 수만 있다면 떡 하나 아니 놔도 할 수가 있어요. 하더라도 촛불 하나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의 촛불이 꺼져있으니 보이는 것만 촛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무 것도 놓지 않아 먹을 게 없이 돌아간다고요? 왜 먹을 게 없습니까? 모두 차려놓지 않았습니까? 집이 내가 먹으면 조상님도 먹고 집이내가 굶으면 조상님도 굶는데, 아 집이내와 조상님이 같이 나누게 함께 하고 가시는데 뭐가 배고파서 걱정이냐구요. 내 몸통이 속의 생명들이 다 같이 더불어 감응을 하고 향으로 양식을 삼아서 공양을 하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 도리를 알아서 천지가 바로 내 것이 됐다가 다 버리고 다시 담아서 배풀어 줄 수 있는 부처님이 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왕 질문을 하셨으니 오늘은 재에

열심히 해서 세세생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이 없을 겁니다.

재를 지낼 때는 초, 향, 물, 과일 떡, 그리고 위패를 놓습니다. 이것도 방편이죠. 그리고 형편이 어렵지 않은 사람은 꽃도 한다발 놓으요. 또 상 옆에는 언제나 큰 그릇에다 물을 한 그릇 떠 놓으세요. 그것은 내 몸속에 있는 의식들, 즉 집착이나 관습이나 욕심같은 것들을 다 씻고 씻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주인공(主人空)에 진실하게 관(觀)한다면 그것이 더 진실하게 통합니다. 지장은 지장대로, 칠성은 칠성대로, 관세음은 관세음대로, 일체제불 여래가 다 통합니다. 전황기가 현대만 있다면 한 군데밖에 통할 데가 없거든요. 저승과 이승은 한 군데밖에 통신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얘긴데 이것도 여러분에게 방편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엔 그냥 길에 다니면서도 방편 없이 그대로 천도를 시킵니다. 그대로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다를 다기로 삼거든요.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자기 걸로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향이나 초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건데 무엇을

“보통의 재료 삼으면 삶이 덜 힘들어”
“이것 저것 · 내탓 네탓 따지면 공부안돼”

더 달라 덜 달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고 가다가도 천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렵고 어려운 사람이 천도를 해달라고 목을 매고 매달릴 때, 길에서 거기다 상 차려놓고 하겠습니까? 바다를 다기삼고 과일을 향기삼아서, 또는 향을 양식삼아서 그냥 천도를 하는 것이 더 일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하면서 시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조상님들도 그 뜻을 알고, 이웃집에서도 그 뜻을 알게 돼요. 그러나 떡의 몸체를 위패삼아 들고 나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체계 없으면 부처님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요. 체계 없는 영령들은 항상 체계 있는 데에 접근을 해야만 이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부를 하면 조상님 12대 증손까지 공부를 해서 건져진다 이런 소립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12대라고 해서 그게 한계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들고 나는 데는 조상님 한분만이 아니라 수억 겁전의 모습들을 전부 내 주인공자리에 다 놓으면 날어도 날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꺼내도 즐지 않으니깐요. 이렇게 고귀하고 광대무변한 묘법이 여러분 가슴속에 다 있는데 그것을 희미하게 생각한다면 그 아프게 살던 부모들, 아프게 살던 형제들, 수억겁을 통해서 진화되고 형성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면서 서럽게 견뎌왔던 아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면 한 할나지만 모르면 수억겁 광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체계 없는 영령들의 위패를 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응접을 해야만 이 아시나간요. 위패도 고정시켜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스럽게 사는 것과 같이 죽은 사람도 살아있을 때의 습이 없어진다면 체계 없이 사는 도리를 알아 자유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서 위패를 정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리 만리라도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은 다 모이는데 왜 그것을 거기다 묶어놓고 있습니까? 이 자유스런 도리를 모르고 발목을 묶어 놓으면 조상님들이 오셔서 집이내의 마음을 읽어보는데, 그 마음이 집착해 있으니깐 똑같이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패를 묶어두지 않고 담요날 써서 재지내고 바로 태워버리죠. 그게 어

법공양페이지는 중점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8면으로 계속

생활 속의 불교 160

안간힘을 쓴다고 일이 잘된다면 누군들 못하랴.

“버릴 수 있는 데까지 버리고 쓸 수 있는 데까지 쉬고 비울 수 있는 데까지 비워라. 가지려는 생각 쌓아두려는 욕심에는 한계가 있으니 크게 버려라. 텅 빈 마음으로 한계가 없다. 참 성품은 텅 빈 곳에서 스스로 발현된다.”

산은 날보고 산갈이 살라 하고 물은 날보고 물갈이 살라 한다. 빈 몸으로 왔으니 빈 마음으로 살라고 한다. 집착 욕심 이상 중요 따위를 버리고 빈 그릇이 되어 살라고 한다. 그러면 비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고 한다. 항상 비어 있기에 무엇이든 항상 담을 수 있다고 한다.

수행은 쉽다. 이것은 내가 했고 저것은 내가 안했고,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는 식으로 항상 마음이 바빠서는 도무지 자유를 맛볼 수 없다. 내가 내 마음을 '이것'에 붙들어 매어놓고 '저것'에 고통을 걸어놓고 있는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항상 노예로 살 수 밖에 없다. 수행은 비움이다. 내가 한다. 내가 준다. 내가 갖는다 하는 생각 또는 잘해야지,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따위의 생각

을 버리고 빈 마음으로 되는 것이 수행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쉬고 비우기는 커녕 하는 일마다에서 거꾸로 집착과 욕심을 키우며 산다. 일이 뜻대로 안된다고 안타까워하고 잘못 될까봐 겁을 낸다. 번뇌 망상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면서 거기에 얽매어 켄켄매매 살고 있다.

쉽과 비움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不爲)과 다르다. 하기는 하되, 그것도 아주 열심히 하되 과정이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말하자면 일이 되어가는 과정에선 저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받아드리는 마음이 그와 유사하다. 적어도 겁내고 두려워하고 짜증을 부리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지 않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쉽과 비움은 달리 말하면 놓고 말기는 것이다. 놓고 말길 곳이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니라 본래의 이치가 그러하고 자연의 법칙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고 텅 비어 허공 같이 맑다고 한다. 그러므로 놓고 말길다는 것은 본성에 순응하는 것일뿐 따



로이 어떤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저 본성이 그러함을 믿고 구태여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식의 작위(作爲)를 부리지 않으면 그것이 놓음이요 맑김이요 쉽, 비움이 된다.

마음의 현명거품을 쉬고 나를 앞세우는 욕심을 비운다면 내 마음은 본성 그대로를 담게 된다. 빈 그릇같이 되는 것이다. 빈 그릇엔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 그것이 비워지면 뭐가 채워지기도 한다. 꼭 채워진 것엔 무엇이든 더 담길 수 없듯이 내 마음도 집착 욕심 이상 중요 따위로 꼭 채워져 있으면 더는 담아낼 수 없게 된다. 고로 채워지기를 바라다면 먼저 비워라.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부터 비워야 한다. 그러면 그 그릇에 지레가 담긴다. 편안함이 찾아 온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지레롭고 평화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을 거부한다. 쉽이 곧 나의 실종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비움을 싫어한다. 비운다는 것이 곧 나의 무능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성이 허공처럼 텅 비고

맑아 있다면 허공같은 본성이 '니'를 나쁘게 할 까닭이 없다. 작은 공을 내리 칠 수 없다. 공이 공을 더치게 할 수 없다. 뭔가 '있음'일 때나 칠 것이 있지 않아서 텅 비어 있는데 무엇을 더치게 할 것인가.

애착을 버린다는 것, 욕심을 덜어내어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포기나 체념이 아니요 무기력이나 무능이 아니다. 욕심을 부리는 대로 모든 게 잘되고 애착을 갖는만큼 성사가 된다면 누군들 그걸 마다하겠는가. 일이 되어가는 과정이나 결과를 보며 안달을 하고 안타까워 함으로써 욕심껏 잘 되어간다면 누군들 그것을 못하겠는가.

계 틀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끼워 넣었을 때 끝내는 달이 나듯이 본성에 맞지 않는 길을 고집한다면 한때는 잘 되어나가는 듯이 보일지라도 끝내는 어그러지고 만다. 흐르는 물을 억지로 가둬 두었을 때 마침내 득이 무너지는 것처럼. 따라서 쉽, 비움은 도인의 길이 아니라 보통사람 우리들의 길인 것이다.

협찬: 박상현